

##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본성

신성근 신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교회는 그 존재와 사명을 그분에게서 받았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사회단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루시는 불가분한 일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는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현존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성령께서 거룩한 숨을 불어넣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현존, 성령의 현존으로 보는 것이다.

### I. 하느님 계획 안에서의 교회<sup>1)</sup>

#### 1. 교회의 이름과 표상들

‘교회’<sup>2)</sup>라는 말은 ‘불러 모음’을 뜻한다. 이 말은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키며,<sup>3)</sup> 구약 성경에서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집회에 자주 사용되었다.<sup>4)</sup> 그리고 신약의 초기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그 집회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sup>5)</sup>

그리고 ‘교회’는 전례적 집회를 가리키지만,<sup>6)</sup> 또한 지역 공동체를 가리키거나<sup>7)</sup> 온 세계 믿는 이들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sup>8)</sup> 아무튼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이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전례의 거행, 특히 성체성사를 위한 전례적 모임으로 실현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sup>9)</sup>

또한 성경에는 교회의 깊은 신비를 말하기 위해 계시에서 사용되는 서로 연결된 수많은 표상이 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근본 개념을 드러내고자 여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1쪽.

2) 라틴 말 Ecclesia는 그리스 말의 ek-kalein ‘밖으로 부르다’에서 나온

3) 사도 19,39 :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4) 탈출 19장 참조.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1항 참조.

6) 1코린 11,18 :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 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4,19 :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7) 1코린 1,2 :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8) 에페 1,22 :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2항 참조.

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머리’가 되셨으며<sup>10)</sup> 그들은 그분의 몸이 된다고 표현한다.<sup>11)</sup>

교회는 또한 양 떼이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목자가 되신다.<sup>12)</sup> 그리고 착한 목자이시며 목자들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양들을 기르시고 이끌어 주시며,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sup>13)</sup>

“또 흔히 교회를 하느님의 건물이라고 한다.<sup>14)</sup>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돌에 비겨,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마태 21,42과 병행구; 사도 4,11; 1베드 2,7; 시편 118[117],22) 하셨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 지어졌고,<sup>15)</sup> 그 기초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결속력을 지닌다.<sup>16)</sup>

## 2.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sup>17)</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다. 곧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셨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시작과 짝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당신 주위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작은 양 떼”(루카 12,32)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공동체에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룩될 때까지 지속될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 우선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는데,<sup>18)</sup> 이들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초석이 된다. 열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운명에도 참여한다.<sup>19)</sup>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준비하고 세우셨다.

## 3.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당신 사명을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

10) 교회 헌장 9항 참조.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3항 참조

12) 이사 40,11 :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4항 참조.

요한 10,11 :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4) 1코린3,9 :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15) 1코린 3,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6항 참조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763-765항 참조

18) 마르 3,14-15 :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9) 마태 10,25 :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하셨다. 그날 교회는 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 설교를 통하여 여러 민족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선교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도록 하셨다.<sup>20)</sup>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창립자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기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sup>21)</sup>

### 3. 구원의 성사인 교회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교회는 또한 인류 일치의 성사이기도 하다. 이 일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묵시 7,9)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장차 도래할 이 일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표징이며 도구”이다.<sup>22)</sup>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같이 전해졌음을 강조한다.<sup>23)</sup>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회를 이룩한다. 하나인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sup>24)</sup> 그들은 모두가 머리아신 주님의 지체로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 II. 하느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 1.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한 무리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 하느님

20) 마태 28, 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767-768항 참조.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775항 참조.

23) 로마 1,16 :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24) 사도 2,38 :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더욱 완전한 계시의 준비와 표상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sup>25)</sup>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존엄성이다.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형제적인 삶과 사랑과 진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교회는 '형제들'<sup>26)</sup>이며,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sup>27)</sup> 이라고 부른다.

##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sup>28)</sup>

### 1)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를 시작하신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sup>29)</sup>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시면 당신의 삶에 그들을 참여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친교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4-5).

그리고 당신의 몸과 우리의 몸 사이의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친교도 예고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1항 참조.

26) 사도 1,14-15 :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27) 사도 2,21 :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7-795항 참조.

29) 마르 1,16-20 :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다.”(요한 6,56)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sup>30)</sup> 세상 종말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sup>31)</sup> 마침내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sup>32)</sup>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우들에게 나누어지며, 성사를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다. 곧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심으로써,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가 들어 높여진다.<sup>33)</sup>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7-28). 다시 말해 우리가 세례성사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 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총만함입니다. 머리와 지체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sup>34)</sup>

##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배필)<sup>35)</sup>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는 종종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로 표현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라는 이 주제는 예언자들에 의해 마련되었고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선포되었다.<sup>36)</sup> 주님께서도 당신을 “신랑”(마르 2,19)이라고 자처하셨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교우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오직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이다.<sup>37)</sup> 교회는 흠 없는 어린양의 흠 없는 신부이다.<sup>38)</sup>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

30) 요한 14,18 :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31) 마태 28,20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32) 사도 2,33 :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3) 교회 헌장 7항 참조

34)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복음 강해」, 21,8.

3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배필)이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를 이루면서도 뚜렷이 구별됨을 볼 수 있다. 곧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인격적으로 고유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일치를 이루면서도 구별된다. 또한 이 표현은 교회가 어머니임을 잘 표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배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양육된다. 그래서 교부들은 “자모이신 성교회”라고 불려왔다.

36) 요한 3,29 :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총만하다.

37) 1코린 6,15-17 :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에페 5,26)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sup>39)</sup>

### III. 성령의 성전인 교회<sup>40)</sup>

....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가지는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작용이다. 이는 성령께서 온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시면서도 또 온전히 각 지체들 안에 계시면서 작용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으로 만드신다.<sup>41)</sup>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각 지체가 하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 안에서 온몸을 이루신다.<sup>42)</sup> 곧, 지체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사도 20,32)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례를 통하여,<sup>43)</sup>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치유하는 성사를 통하여, “그 선물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받은 가장 뛰어난 은총”<sup>44)</sup>을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는 덕행들을 통하여, 끝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카리스마)들을 통하여 신비체를 이루신다. 이 은사들은, 신도들이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준비시킨다.”<sup>45)</sup>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셨다. 교회는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763항)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써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 즉 모든 사람

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38) 에페 5,29 :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39) 가톨릭 교회 교리서, 796항 참조.

40) 가톨릭 교회 교리서, 797-798항 참조.

41) 에페 2,21 :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42) 에페 4,16 :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43) 1코린 12,13 :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44) 교회 헌장, 7항.

45) 교회 헌장, 12항.

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림을 받는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804항 참조).

하느님 백성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당신 몸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몸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 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사신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위해 당신을 내어 주셨고, 당신 피로 교회를 정화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교회는 성령께서 살아 숨 쉬시는 성전이다.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영혼과 같아서, 그 생명의 원리이시며, 다양성 안의 일치와 풍요로운 선물과 은사들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805-810항 참조)